

# 광주 '교사 채용 사기' 피해 확산

## 고소 잇따르고 피해액 늘어 3억원 육박 "1억2천만원 줬다" 또 다른 피해 신고 "사채에 병원비 빼서 줬는데..." 피해자 가족 하소연 편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건(광주일보 2월19일자 6면)과 관련, 신고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해당 교사에게 속아 수 억원을 건넨 피해자 가족들이 원상회복과 하소연을 담은 편지(사진)를 달아난 교사 집 앞에 붙여놓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가 하면, 사립학교 특별 감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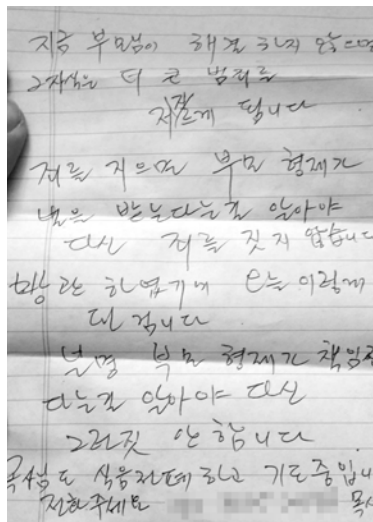
광주 북부경찰청은 20일 광주 D고교 교사로 있던 김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다가 받지 못했다는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비정규직 교사

로 근무하면서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는 김씨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씩 건넸다고 썼다. A씨는 12월이면 끝나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타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년간 일해도 정교사로 채용되기 힘들다"는 김씨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등 기간제 교사들 뿐 아니라 사회체육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동호인들에게 대기업 인맥을 과시하며 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달아난 금액만 2억9000만원



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한 피해자 부모는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살던 집 문 앞에 장문의 편지를 붙여놓으며 김씨 부모에게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부모는 편지에서 "사채 끌어들이고

부모님 병원비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썼는데 그걸 어떻게"라며 글을 잊지 못했다.

그는 또 "그게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남의 피 눈물 빼면 당신들은 수백 배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고 쓴 뒤 "똑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현직교사’라는 신분을 믿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정교사 채용은 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통원치료가 지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D고는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씨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이동병원 독감환자 북적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광주시 북구 한 이동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정교사가 뭐길래... 기간제 교사는 서럽다

#1.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A씨는 기간제교사로만 5년간 일했다. 정규 교사로 채용해주지 않아서다. 6년째 계약을 요구하자 학교를 떠났다. A씨는 5년간 담임을 맡는 등 갖은 일은 도맡아했다.

#2. 중학교 기간제교사 B씨는 학교 가는게 두렵다.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비정규직이라며 차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장·이사장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개인 심부름까지 시킨다고 했다.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학생들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 곳은 일 도맡고 개인 심부름까지...학생들도 차별

### 광주지역 중·고 1684명으로 전체 교원의 21.5%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는 1684명에 달했다. 전체 교원의 21.5%를 차지했다.

기간제교사의 양산은 교육당국이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15~20% 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교사 과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실용은 신분 불안에서 시작된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7년까지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사례도 있다.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교장·교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다. 정규 교사들이 꺼리는 담임은 물론 교무주임까지 맡기도 한다. 심지어 학교 평가인 공개수업에 지 떠맡는 경우도 있다. 공개수업을 잘 마무리해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과금이 나오면 정규 교사들에게만 돌아간다.

계약직이다보니 자주 바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기간제교사가 많다. 광주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의 50%가량이 국·영·수 교과라고 한다.

기간제교사의 꿈은 정규교사다. 이 때문에 뒷돈 거래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기간제교사는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정규 교사가 되려면 1억원 가량이 든다"고 밝혔다. 명목은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한다.

광주의 한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을 맡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 "하지만 복지혜택은 정규 교사만이 누린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사립학교 교사채용 특별감사 실시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0일 현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게 채용 대가로 1억여원의 돈을 받아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

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초 광주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발생경보를 발령하고 주시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올해 1명 이상의 정규 교사를 채용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채용과정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교사채용 시스템에서는 언제든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가 교사채용 업무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

는 것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의 교사와 직원의 인건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사립학교 교사 선발권을 정부와 교육청이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동부교육장에 윤혜숙 광주교육청 보직인사

광주 동부교육장에 윤혜숙 광주교육연수원이 임명되는 등 광주시교육청 주요 보직인사가 20일 단행됐다.

이날 인사에서 광주교육연수원장에 정석기 학교안전생활과장이, 유아교육진흥원장에 오화신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각각 선임됐다. 미래인재교육과장에 김용배 상무교과장이, 체육복지건강과장에 문준민 중앙중 교장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학교안전생활과)에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각각 전보됐다.

서부교육청 교원지원국장은 고희숙 동부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승진했다. 동부교육청 초등지원과장에는 이미라 수문초 교감이, 중등교육지원과장에 박주정 금당중 교감이 전직됐고, 학생복지건강과장에 김재안 장학사가 승진 임용됐다. 광주교육연수원 운영 부장에는 조배원 광주 상무초 교장이,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에 양숙자 문우초 교감이, 과학교육부장에 박영숙 성덕고 교감이 임명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결핵 퇴치" 보건소 관리인력 190명 보장

보건당국이 결핵 퇴치를 위해 전국에 결핵관리인력을 보장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결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254개 보건소에 결핵관리인력 190명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500여 명의 전염성 결핵 환자가 신고돼 해당 426개 학교에 대

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전염성 결핵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학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2012년 기준 국내의 결핵 신규 환자는 3만9545명, 인구 10만 명당 7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사 노트북 훔친 학교 경비원 거짓말 탐지기 추궁 끝 '덜미'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60대 경비원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추궁 끝에 덜미가 떨어졌다.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이 학교 교

사인 김모(33)씨가 놓아 둔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들고간 정모(61)씨를 절도혐의로 검거.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노트북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보고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범행을 자백.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학 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 교육 과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2. 21(금) ~ 2. 24(월)  
· 전형 일 : 2014. 2. 25(화) 오후 2시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덕지사로 36

지난 16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망의 **분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공무원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 회 이상 특강

○초청교수: 명지대 부실채권(NPL)문제수 교수, 동강대 이왕우 지적학과 교수, 김주한 세무사 前세무서장, 전동양 법원 집행관 등 전문교수진

○강의기간 : 3월~6월(선착순 70명 마감)

강 의	부동산경매과정	부동산실질경매과정	부동산실질경매최고과정
일 시	매주(수) 주2번 15시~17시 아간번 19시~21시	매주(목) 아간번 19시~22시	매주(화) 주2번 10시~12시30분 아간번 19시~21시30분
수강료	12만원	18만원	20만원
장 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교육대 평생교육원
연락처	062)530-3873~4		062)520-4243

특 전 : 자격취득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경매 분석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의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부동산강의 및 경매컨설팅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농촌진흥청

#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